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의정 초대석

신재걸 강릉시의회 부의장

민선 7기 제11대 후반기 강릉시의회 부의장을 맡으셨는데요,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시의회 부의장이기에 앞서 3선 의원으로서 쌓은 오랜 의정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오랜 의정활동 중 가장 생각나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아무래도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일명 군 항공 소음법)’ 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군 비행장이 있는 월호평동을 중심으로 강남동 지역 주민들은 오랜 세월 군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제11대 전반기 의회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여러 차례 군 소음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 등 지속해서 비행장 주변 마을 피해 보상을 중앙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 10월 군 항공 소음법이 통과되어 비행장 주변에 거주하는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 피해 보상을 받게 됐고, 더불어 소송과정에서 겪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비용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많은 숙제가 남아있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부의장으로서 이번 하반기 의회 기간 꼭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신지요? 지난 의정 기간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우리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장현저수지 생태환경 복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쓸 생각입니다. 장현저수지는 2012년 태풍 루사 때 제방이 무너지는 등 일대 수변 환경이 파괴되어, 생태 복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정부는 그린에너지, 스마트, 디지털 등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형 그린뉴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수지 인근 생태 습지 복원과 스마트 탐방시설 조성 등을 청사진으로 하는 사업을 환경부 공모사업에 신청했습니다. 저수지 인근 생태 습지 복원사업에 그린뉴딜을 덧입혀 장현저수지 일대가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간직한 저탄소 친환경 공간, 시민을 위한 교육과 휴식의 장으로 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코로나 청정도시’라는 이미지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모두 시민들의 동참과 협조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몸과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심리지원,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는 최상의 백신은 서로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릉시의회 동료의원들과 함께 시민에게 봉사하는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㉞



“올바른 현실인식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정 초대석

허병관 강릉시의회운영위원장

민선 7기 제11대 후반기 강릉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소감과 함께 운영위원회는 어떤 곳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우선 운영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한 시민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의 협의, 특별위원회의 구성, 상임위원회 간의 소관 업무 조정, 그리고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한 마디로 전반적인 의회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물론, 의원, 집행부, 시민을 하나로 연결하는 구심체 역할을 합니다.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는 활력이 넘치고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반기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는 점은 무엇인지요? 최근 지방재정법 및 의원윤리강령 등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에서도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의회가 사회의 변화와 시민의 요구 등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는 의원들의 역량 강화와 올바른 현실 인식을 위한 다양한 연수를 마련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집행부와 상생하는 유기적인 시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입법 전문의원을 배치하여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의정 기간 많은 일을 하셨는데, 가장 생각나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제10대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장, 제11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 교통환경 등 인프라 조성에 역점을 둔 점입니다. 강릉원주대~죽헌교차로 구간 도로확장공사, 마을 진입로 신호체계 정비, 군 경계 해안 철책과 군사시설물 철거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중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었던 경포도립공원 구역이 해제되었던 때가 가장 뜻깊은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2015년 12월, '강릉시 경포도립공원 구역 해제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강원도와 환경부에 건의안을 전달하는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지역발전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2016년 경포도립공원이 해제됐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하반기 의회 기간 꼭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신지요? 해마다 반복되는 경포호와 진안상가의 침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과거 경포변회회 회장,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 강릉의 관광에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포호수 진안상가 일대는 태풍,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적으로 큰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집행부 소관부서에 건의해 왔는데, 그 결과 2021년 당초예산안에 경포지구 방재시설 유수지 조성사업이 반영되어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경포가 아름다운 생태 습지로서의 가치와 관광 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2020.11.25.~12.18(24일간) -

2021년도 당초예산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 질문

강릉시의회는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각종 조례안 등 안건심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집행부에 대한 시정 질문도 이어진다.

의회는 1조 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을 살펴야 하는 2021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관광 거점도시 등 대규모 핵심사업, 코로나19 이후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강릉형 뉴딜 사업 추진, 재난 및 안전관리, 재해 예방 등 주민안전과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사업 추진이 미진하고 산출 내용이 불분명한 사업에 대하여 면밀하게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할 계획이다.

또한, 12월 11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고, 14일부터는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심의와 일반안건 처리를 끝으로 올해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날 짜	활 동 내 용
11월 25일	◦ 제1차 본회의 : 개회식 ◦ 의회운영위원회
11월 26일~27일	◦ 상임위원회 :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11월 30일~12월 4일	◦ 상임위원회 : 2021년도 당초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월 7일~9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년도 당초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월 10일	◦ 상임위원회 : 추가 안건심사
12월 11일	◦ 제2차 본회의 - 2021년도 당초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시정 질문
12월 14일~16일	◦ 상임위원회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추가 안건심사
12월 17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2월 18일	◦ 제3차 본회의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

지방자치시대 지방의회 발전방안 포럼

제11대 후반기 강릉시의회가 지난 11월 4일 강릉 씨마크 호텔에서 '지방자치 시대 지방의회 발전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기조 강연과 주제발표를 듣는 자리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급격한 노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에 놓인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 개선이 시급하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희문 의장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전문성 강화를 통한 정책 의회 구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해법으로 입법 전문위원 확충과 의정자문위원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의원 맞춤형 교육강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강릉시의회 정규민 산업위원장과 김주원 한국생활자치연구원 본부장, 신윤창 강원대 교수, 우승룡 강원일보 영동 총지사가 나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1 2021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방향을 청취하는 의장단 회의 2 관광 거점도시 등 대규모 사업 등 현안을 논의하는 전체의원 간담회 3 정례회 대비 의정 연수 4 예산안 심화 과정 특강과 법정 의무교육인 4대 폭력 예방 교육 이수 5 제288회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협의 중인 의회운영위원회 6 강희문 시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일 명예지사장